◆ 폐회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 마다'



내앞에 어려운일보네 날마 다 숨쉬는순간마다 주님 날마 다 주님내곁에 계셔 자비로 날감싸주시네 마음 인생 의 어려운순간마다 주의약 속생각해보네



에이몸옳말 길 때 슬픔 없 네두려움없 네 주님 어린 에이몸을맡길 때 힘주 시 네위로함주 네 에믿음잃지 않고 주님 말씀 속 에위롪얻 네



그자비로운 손 길 은것주시도 다 사랑 항상 종 내가 나 를품에안으 시 사 안함주시도 다 항상 평 의 도우심바라 보 며 모든 어 건움이기도 다 율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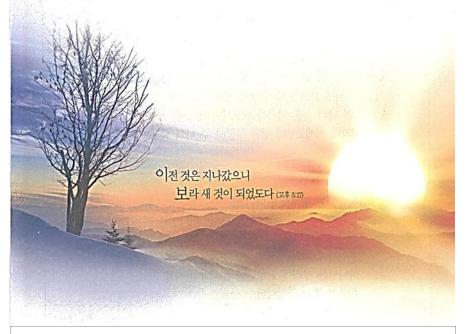
레아픔과기 뿜 올 수고 와 평화와안식 올 아숨율쉬는 동안 살피 신 다약속하셨네 는순간순간 마다 주님 약 속새겨봅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송구영신예배

1. 찬양, '좋으신 하나님'







2. 묵상 기도

3. 교독문 93 번, 새해 1 낭독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 ◆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 ◆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 New Year 1

In the beginning you laid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They will perish, but you remain. They will all wear our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discarded.

But you remain the same, and your years will never end.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You were taught with regard to your former way of life to put off your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by its deceitful desires.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and to put on the new self, created to be like God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Amen)

8. 참회와 소망의 기도 - 다함께

송년(送年)

박인걸 목사

출발은 언제나 비장했으나, 종말은 항상 허탈이다.

동녘의 첫 햇살 앞에 고개 숙여 경건하게 다짐한 결심이 무참히 무너진 연종(年終)

거창했던 구호와 문신처럼 새겨 넣은 각오 작심삼일이 되어 모래성처럼 무너진 한 해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면, 자괴감에 슬프고, 이루지 못한 소망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게을렀던 내 탓이다.

이맘때만 되면, 내 모습은 점점 쪼그라들고 길바닥에 뒹구는 막돌멩이만큼 초라하다.

하지만 눈을 들어, 새 캘린더를 바라본다. 잎만 무성한 나무아래 도끼가 날을 서고 있지만, 다시 삼백 예순 닷새가 있기에... 할렐루야!!!

7. 오늘의 말씀 '묵은 땅을 갈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자!'

◆ 예레미야 4장1-4절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 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 4.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 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 Jeremiah 4:1-4 (Cev.)

The LORD said: Israel, if you really want to come back to me, get rid of those disgusting idols.

Make promises only in my name, and do what you promise!

Then all nations will praise me, and I will bless them.

People of Jerusalem and Judah, don't be so stubb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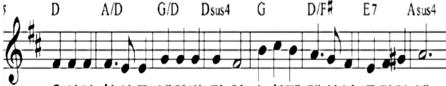
Your hearts have become hard, like unplowed ground where thornbushes grow.

With all your hearts, keep the agreement I made with you.

But if you are stubborn and keep on sinning,
my anger will burn like a fire that cannot be put out.

(A-men)

4.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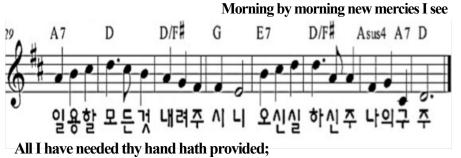
오신실 하신주 내아버지 여 늘함께 계시니 두렴없 네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달 별들도 다주의 것 내죄를 사하여 안위하 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 네



그사랑 변찮고 날지키 시 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만물이 주영광 드러내 도 다 신일한 주사랑 나타내 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 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